

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519-14

KOICA

지구촌 행복시대, KOICA가 함께합니다.

제26호 | 2016. 12월

개발과 이슈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검토

1. UN 고위급정치포럼:
2012-2015
2. UN 사무총장 보고서와
검토 및 후속조치 과정
3. 2016 자발적 국별 평가
(VNR)
4. 2016 UN HLPF의 의의와
향후 일정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주관 하에 2016년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2016년 7월 11월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SDGs의 기본 정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포럼에는 회원국,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간 기관 및 UN 기관 관계자 등 약 1,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공식 프로그램 이외에도 부대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회의와 행사가 개최되었다.

SDGs 이행 첫 해임과 동시에 SDGs 이행 후속조치 및 평가를 목적으로 수립된 HLPF가 처음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장으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글에서는 HLPF의 수립과정과 2016년 첫 번째 SDGs 이행 평가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일정을 정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SDGs 이행 준비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평가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발적 국별 평가(VNR)의 내용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포용적 파트너십 강화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SDGs 이행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개발팀 김지현

1. UN 고위급정치포럼: 2012-2015

2012년 6월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의 결정으로 UN HLPF는 수립되었다. 동 회의의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HLPF에 대해 “우리는 전 세계적인 국가 간 고위급정치포럼을 설립하기로 한다. 이는 지속가능개발 위원회의 장점, 경험, 자원과 포괄적 참여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후 위원회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고위급정치포럼은 지속가능개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의 구조, 조직과 중복되지 않도록...(UN 2012 para 85).”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제67차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 UNGA)는 Agenda 21의 이행 결의안과 HLPF 창설을 위한 협의 과정을 서술한 Rio+20 (A/RES/67/203) 결과문을 채택하였다. 본 결의안 내용 중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수립하기 위한 공개 작업반(Open Working Group)의 출범 또한 규정되어 있어, HLPF와 SDGs는 그 수립부터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후 HLPF의 구성방식과 조직구성을 위한 비공식 회의가 2013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2013년 7월 9일 HLPF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 결의안 A/RES/67/290을 채택하였다.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 발휘 및 이행방향과 권고사항 제시
- 지속가능개발 협약의 이행 과정 검토 및 후속 조치 시행
- 지속가능개발의 3대 축(경제-사회-환경)의 통합 강화
- 새로운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고려한 역동적이며 행동지향적인 의제 설정

이를 위해 HLPF는 유엔 총회 주관 하에 각국 정상급 회의로 4년에 한번 유엔 총회 개회기간 중 2일간 개최되며, UN ECOSOC 주관 하에 장관급 회의 3일을 포함하여 매년 8일간 개최하기로 하며, HLPF는 모든 회의에서 합의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HLPF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건설: Rio+20에서 Post-2015개발의제까지(Building the future we want: from Rio+20 to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주제 하에 2013년 9월 24일 유엔총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2차 포럼은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UN ECOSOC 주관으로 “MDGs 달성과 SDGs를 포함한 야심찬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길(Achieving the MDGs and charting the way for an ambitious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ncluding SDGs)”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특히 2014년 제2차 HLPF

에서는 MDGs의 Gap Task Force 보고서에 명시된 격차 극복을 위해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아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M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15년까지 ODA/GNI 목표 0.7%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UN ECOSOC 2014). 2015년 ECOSOC 주관으로 UN 본부에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개최된 제3회 HLPF는 “통합, 이행 및 점검의 강화: 2015년 이후의 HLPF (Strengthening integration, implementation and review: the HLPF after 2015)”를 주제로 하였고, 포럼 마지막에 장관급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2. UN 사무총장 보고서와 검토 및 후속조치 과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SDGs의 검토와 후속조치 과정에서 HLPF의 역할은 2030 의제의 이행 과정에서 도전과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역할은 국가, 유엔 기구,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와 방대한 SDGs에 대한 검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다. 2016년 1월에 발표된 UN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이며, 실제로 향후 HLPF의 운영에 많은 부분 반영되기도 하였다.¹⁾

사무총장보고서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HLPF가 다루어야 할 의제로 1) SDGs 경과보고서, 국가 검토 및 지역검토를 포함한 전반적인 진전 상황 점검; 2) 주제별 검토와 SDGs 하위 그룹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한 분야별 진전 상황 검토; 3) SDGs의 이행수단에 해당하는 목표 17에 대한 검토와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이행과정; 4)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등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A/70/684, para. 21). 이는 HLPF가 단순히 정치적인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inputs)들을 취합하여 정치적,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ibid. para. 55) 실제적인 기구로 활용될 것을 제안하였다.

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critical milestones towards coherent, efficient and inclusive follow-up and review at the global level, A/70/684 (2016.1.19.).

이러한 가운데 매년 개최되는 HLPF는 지속가능발전의 3대축과 2030의제의 구성요소들을 고려한 주제를 정하여 진행될 것을 제안하는 한편 2030의제가 HLPF가 “범분야 이슈를 포함한 SDGs”에 대한 주제검토를 이끌어가야 함을 상기하면서(ibid. para. 94), SDGs 검토의 2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모든 SDGs 목표를 주제에 맞게 검토하는 방안으로 이는 HLPF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도깊은 논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ibid. para. 95).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SDGs 목표를 몇 개로 묶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4년에 한번 개최되는 UN 총회주도의 정상급 HLPF에서 종합검토를 하도록 제안했다(ibid. para. 96).

〈표 1〉 UN 사무총장 제안 HLPF 검토 주제와 SDGs 목표(안)

	2016	2017	2018	2019
HLPF 주제	Ensuring that no one behind left	Ensuring food security on a safe planet by 2030	Making cities sustainable and building productive capacities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gender equality
SDGs 목표	1, 6, 8, 10, 17	2, 13, 14, 15, 17	7, 9, 11, 12, 17	3, 4, 5, 16, 17

출처: A/70/684 para. 99.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총장은 4년 주기의 SDGs 검토를 제안하면서 2017년에는 식량안보, 기후변화, 육상생태계 및 해양에 관한 주제를, 2018년에는 에너지, 도시, 산업화 및 생산과 소비의 연계에 관해, 2019년에는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양성평등과 교육, 보건의 관계를 보면서, 이러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파트너십과 이행수단을 다루는 목표 17을 매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4년 주기로 모든 SDGs 목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SDGs 목표 자체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제와 목표 간의 연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검토가 제안된 양성평등 이슈는 실제로 목표 1에서는 모든 빈곤감소 정책이 젠더 균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목표 3과 4 역시 MDGs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성보건과 젠더 측면의 교육이 포함되어있다. 목표 11도 도시화와 여성의 문제를, 목표 8도 여성이민자의 수요를 고려할 것이 세부목표 상에는 드러나 있는바, 양성평등을 목표 5에 제한하게 되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어 향후 HLPF의 연례 주제와 검토 목표들 사이의 조정이 필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총장보고서는 자발적 국별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의 과정과 보고서의 구성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ibid. pp.27-30). 보고서는 자발적 국별 평가를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는데, 1) 정부의 수장(head of State or Government) 또는 장관급 고위 공직자의 두문(opening statement) 2) 2-3개의 사례 및 도전과제 등을 포함한 1-2장 분량의 요약 3) 서론 4) 평가를 위한 방법 및 준비과정 5) 정책과 이행촉진 환경(enabling environment) 6) 이행수단 7) 향후계획 8) 통계자료 9) 결론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부분 중 특히 5) 정책과 이행촉진 환경부분에서는 a) SDGs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이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담은 주인의식 고취 b) 국가 체제 안에 SDGs를 연동시키려는 노력 b) 환경-경제-사회의 3대 축 통합접근 d) SDGs의 목표와 세부 목표별 접근 e) 주제별 분석 f)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정비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SDGs 기간 동안 각국이 적어도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VNR은 2030의제와 SDGs를 이행하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HLPF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이 구속력이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유사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검토 대상이 될 것을 제안했으며, 동시에 국별 평가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동 검토에 참여할 것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다양한 의견들의 종합임과 동시에 그 중 하나로 이후 여러 차례의 비공식회의와 HLPF 운영에 관한 회의 끝에 2016년 HLPF는 “Ensuring No One Left Behind”의 주제 하에 2016년 7월 11일-20일 동안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되었다. UN ECOSOC의장(2015.8-2016.7 오준 주UN대표부 한국대사)의 주관 하에 11일-15일의 5일간은 전문가 주간으로 정하여 18개 공식행사와 53개 부대행사, 10개의 SDGs 학습훈련 프로그램(Learning & Training practices)가 개최되었다. 이후 18일-20일은 각료급 주간으로 5회에 걸쳐 VNR 발표를 청취하였으며, 3개의 일반토론(General Debate)를 포함한 17회의 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²⁾

총 10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된 가운데 NGOs, 기업 등 총 280여 시민사회 단체, 1,500여명이 참여하여 SDGs가 수립 초기부터 강조하던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2)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16> 참조.

다양한 행사와 회의가 있었던 만큼 2016년 HLPF의 결과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HLPF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VNR을 중심으로 각국의 SDGs 이행과정을 살펴보고 이후 HLPF 활동 일정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3. 2016 자발적 국별 평가(VNR)

앞서 밝힌 바와 같이 UN 회원국들은 향후 15년 동안 적어도 2회 이상 VNR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총 22개국이 자발적으로 국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UN ECOSOC 의장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최빈국 4개국, 도서국 1개국, 저소득국 4개국, 중소득국 5개국, 8개 고소득국이 2030 의제관련 경험을 공유하였다(Box 1 참조).

〈Box 1〉 2016년 자발적 국별 검토(VNR) 참여국

이집트	중국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콜롬비아
한국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멕시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필리핀	사모아
스위스	시에라리온	토고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웹사이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월 19일-20일 양일간 발표와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비록 SDGs 이행의 첫 해이기는 하나 SDGs를 국가 개발 계획과 국제협력 전략에 이미 포함시키거나 이를 시도하고 있고, SDGs와 관련된 국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2016 자발적 국별 평가 요약³⁾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추가 내용
멕시코	• SDGs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특별기술위원회 설립 • 성공사례, 정책, 기술적 선도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설치 • SDGs 이행을 위해 학계와 시민참여 참여를 동반하는 대통령 주도의 고위급 위원회 설치 예정	• SDGs 이행에 대한 고위급 각료의 참여의 중요성 강조 •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국가예산 반영의지 강화
모로코	• 2030 의제에 대한 회의 수차례 진행됨. •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Green Morocco 계획, 재생가능에너지 프로그램; 2030 친환경 관광 전략; 양성평등 프로젝트; 주택과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등 수립	• 청년들과의 대화 확대 필요성 강조 • 7,000여 이해관계자의 140개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포용적 정책 입안 과정 강조
스위스	• [개발협력청] ① 고위급의 정치적 결의 ② 각 정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③ 일관성과 원조조화 ④ 지속가능개발 모니터링시스템 ⑤ 재원동원과 국제적 지원 등이 중요한 이슈 • [민간금융부문] 국가의 이행계획이 기회보다는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에 스위스의 탄소발자국을 반영 필요	• [개발협력청] 청년과 민간부문을 아울러 하향식 및 상향식의 리더십 모두 중요 • 스위스의 2017-2020 개발협력 전략은 2030 어젠다를 바탕으로 수립됨 강조
몬테네그로	• [외교부] 성공 사례공유의 중요성 강조하며, 개도국 자원에 있어 UN시스템이 보다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표명 • [지속가능개발과 관광부] ① SDGs이행 위한 정책기획과 협의과정 ② SDGs지표의 국가모니터링체계 도입위한 단계적 이행 ③ 2030 전까지 주요 달성목표 검토 중요	• 몬테네그로의 지속가능개발의 접근은 인권에 기초를 두고 있음 강조
시에라리온	• 국내재원의 부족과 Post-에볼라 재건이 주요해결과제라고 발표 • SDGs 이행을 위한 활동: ① SDGs 간소화 버전 발간; ② 감작활동 활성화 ③ 국가차원 의제 Agenda for Prosperity와 국가예산에 SDGs 반영 ④ 국가 고유지표 초안 작성	• 개발과정에 청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안에 동의 • 시에라리온 의회의 구제와 감작활동에 대하여 설명

3) 좀 더 자세한 내용은 Executive summaries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 (E/HLPF/2016/7) 참조.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추가 내용
노르웨이	-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성공사례 공유와 건설적 비평이 교환되는데 활용되어야 함 2030의제 이행 주요요소: ① 정부 각 부처의 SDGs 분석→부처별 책무아래 해결 가능한 목표에 집중 ② 연간 경과보고서 발간 ③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④ 원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 [시민사회] SDGs는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할 때 성취 가능하다고 표명	- 지하경제의 타도가 SDGs 이행을 위한 비용을 제공 - 입법과 인센티브를 통해 음식쓰레기 감소 노력 - SDGs는 우리 세대가 마주하는 도전과제에 대한 해답임
마다가스카	-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및 국가적 협의체제 마련 - 공평성, 공정성, 비배제성 등 이를 포함한 사회보장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 국가 재원동원 전략의 개발과 국가계획에 자연자본 주류화 노력	- 위기 예방위해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 강조 - 고용을 국가 내 최우선순위 과제로 선정 - 더욱 책임감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 촉구
조지아	- 정부 부처 소속 전문가들과 국가 통계청을 포함한 'SDGs를 위한 공동 기술 실무 그룹' 구성 14개 SDGs에 대한 우선순위 정립 - 연간 정부 활동계획에 SDGs 도입	- SDGs를 정부 전반에 도입 시 국가체제정비 필요 2016-2017 인권활동 계획은 양성평등 및 UN과의 협력사안을 포함
터키	- 다가오는 11차 국가 개발 계획에 SDGs 포함 예정 - 지속가능개발 합동위원회 통합 강화와 기존의 지표 업데이트 - 신흥 공여국으로서 2015년에 ODA/GNI 0.54% 달성	- SDGs의 비전은 터키의 5개년 계획의 방향 설정에 긍정적인 - 양성평등, 포용성과 재원의 중요성 강조
핀란드	[농업과 환경부] '국제개발조정사무국'을 총리 산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전략과 개발정책은 2016년에 2030여전다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었음. [시민사회] 핀란드의 ODA 감축이 국가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음 강조	국별 탄소 발자국을 감축하기 위하여 순환형 경제와 바이오경제를 성취하기 위한 핀란드의 프로그램 소개
사모아	2012-2016 개발전략을 SDGs에 대조하는 평가를 진행하여 2016-2020 개발전략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국가 지표를 형성함	- 국가 개발 계획과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 - 군서도서국(SDS)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권의식의 중요성 강조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추가 내용
우간다	- 제 2차 개발 계획은 농업, 관광, 광물 산업에 집중 -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입법사례 소개	- 중기 경과보고서와 연간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모니터링 진행 -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에 대하여 강조.
독일	[경제협력과 개발부] SDGs의 모든 측면을 반영하고, 한 조치가 국경을 넘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반영의 필요 [환경과 자연보호, 핵안보부] 현재 생태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소비에 집중하며 독일의 생태 발자국 감축을 위한 여러 전략을 검토 중 [시민사회] 2030의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구속력을 갖춘 시스템의 설립의 필요성 강조	-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에 공공부문의 주도 필요 -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만고불변의 어려움” 이라고 표현
에스토니아	- 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시스템, 자원효율성을 위한 전자 솔루션을 마련하였음 - 기후변화와 남녀임금 격차를 향후 개선과제로 인식함	
필리핀	- 필리핀의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 - 책무성, 이행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 정부 내외 SDG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중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데이터 격차 극복이 주요 과제
토고	- Regional workshop을 통해 SDGs와 국가정책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 2016년 말까지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 수립 완료	

출처: UN ECOSOC (2016a)을 바탕으로 요약 재구성.

요약본의 제출이 5월 전후였던 것을 감안하면 SDGs가 발효된 지 5-6개월 만에 모든 이행 과정 및 이행을 위한 장치를 완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2030의 제를 정부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보고서에서는 SDGs를 이행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포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The German Government 2016) 것처럼 향후 정

부와 해당 국가의 사회적 변화가 암시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터키의 보고서는 SDGs의 비전이 국가발전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자국에 대한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SDGs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다원주의 및 참여 민주주의 하에서 다양한 사회 집단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갈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The Government of Turkey 2016).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높은 교육수준, 평균수명 연장 등 경제성장을 통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사회양극화문제, 대도시 인구집중 및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도전과제로 등장했음을 소개하면서 SDGs의 이행을 위해 22개 부처가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를 통한 협력국 SDGs 이행지원과 녹색성장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서술하면서 SDGs 채택 이후 2016년 1월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과 140대 국정과제 등에 SDGs 관련 내용을 제도화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보고서는 SDGs 이행지원을 국제적 이행으로 보아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5대 구상(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글로벌 새마을운동)이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2030의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국회도 SDGs 의원 연구회를 창설하고 SDGs 이행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VNR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2030의제와 사무총장 보고서가 강조해왔던 시민사회의 참여 부분이다. 정부 대표의 VNR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SDGs 이행함에 있어 각기 다른 관점과 시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 발표에 이어 한국 NGO를 대표하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가 한국정부의 SDGs 이행과정에서 범정부적 접근 방안이 있는지, 시민사회 참여 확대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핀란드의 경우 시민사회 측 발언을 통해 핀란드 ODA가 감소하고 있음이 상기되기도 하는 등 SDGs 이행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단순히 정부-시민사회 간의 대결 또는 협력관계 구축의 의미를 넘어서 2030의제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분석과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 및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가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LPF 기간 동안 발표된 Social Watch, Global Policy Forum, Third World Network, Arab NGO Network 등의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모여 만든 Reflection Group이 발간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스포트라이트(Spotligh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Spotlight 보고서)』로도 나타난다. 2016 Spotlight 보고서에는 SDGs 시대의 기회와 장애물을 분석하면서 전 지구적인 구조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부,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등 2030의제 이행의 주체들에 대한 감시자역할 뿐만 아니라 이행자체의 감시자 역할을 자처하며 17개 목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Reflection Group 2016). 이러한 분석은 UN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들과 함께 SDGs 이행을 검토하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4. 2016 UN HLPF의 의의와 향후 일정

2016년은 SDGs 이행 점검을 위해 HLPF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첫 해임과 동시에 SDGs 이행의 본격적인 신호가 되는 해였다. HLPF가 구체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없으며 정부와 UN 기구, 시민사회 등 사이의 직접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는다는 한계가 분명하여 상징적인 행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한다(Martens 2016). 그러나 HLPF의 수립목적이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운영되는 SDGs에 대해 시민들의 책임을 증진하고, 의제를 달성하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원하며 모범 사례와 상호 학습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볼 때, 2016년 HLPF는 각국 정부대표 뿐만 아니라 주요 그룹 및 시민 사회 단체의 대표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였으며, 실제로 280여 시민사회와 기업 등이 다양한 행사와 회의에서 다양한 역할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2030의제와 SDGs가 추구하는 포용성과 파트너십의 원칙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DGs 이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22개국이 참여한 자발적 국별 평가를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6년 7월 29일 총회에서 HLPF는 결과문서를 채택하였고 2017년 이후의 HLPF의 주제와 검토 대상인 SDGs 목표를 <표 3>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 3〉 향후 HLPF 주제와 검토 목표

	2017	2018	2019
주제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SDGs 목표	1, 2, 3, 5, 9, 14	6, 7, 11, 12, 13	4, 8, 10, 13, 16

출처: UN ECOSOC (2016b)

목표들에 맞추어 주제를 제안하였던 사무총장 보고서와는 달리 빈곤과 번영, 지속가능한 사회, 인간의 역량과 불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상정하고 이에 관련된 SDGs 목표를 평가하려 했다. VNR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독일이 2021년 두 번째 평가에 참여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2017년 자발적 국별 평가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국가는 〈Box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6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Box 2〉 2017년 자발적 국별 평가(VNR) 참여 신청국⁴⁾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로루스
벨기에	벨리즈	보츠와나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케냐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나코
네팔	네덜란드	파나마	페루
포르투갈	카타르	슬로베니아	스웨덴
태국	토고	우루과이	짐바브웨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웹사이트.

2016년 HLPF에 각기 다른 관점에서 SDGs 이행 경과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우선 『글로벌 지속가능개발 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GSDR)』는 4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보고서이며 UN에서 발간하는 좀 더 학술적인

4) 2016.12.6 현재 총 36개국

간행물로 분류된다. 2012년 Rio+20에서 발간이 발표되었지만 그 양식과 기술의 수준에 합의하는데 4년이 소요될 정도의 대표보고서이다. 2014년 이후 매년 파일럿 자료를 작성했으며, 이들을 수정 보완하여 2016년 발간하였다. GSDR은 HLPF에 과학과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입안자가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증거 기반 도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보고서는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15인의 과학자 그룹을 조직하여 2016말부터 작성에 착수하여 2019년 HLPF 정상급 회의에 맞추어 발간예정이다. GSDR의 완성과 HLPF에의 정보제공을 위해 매년 HLPF에 집필진이 초청될 것이며, UN 사무국, UNESCO, UNEP, UNDP, UNCTAD 및 세계은행의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아 작업 팀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6월 첫 번째 『SDGs 경과보고서(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공개되었다. MDGs 보고서와 같이 매년 발간될 이 보고서의 첫 호는 28쪽의 비교적 가벼운 분량으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선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주로 현재 집계 가능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예를 들어 [목표 1]은 이 보고서에서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즉 US\$ 1.90 (2011년 PPP 기준)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20년간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2030년까지 약 6%에 도달하게 된다. 절대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속도가 훨씬 빨라야 한다. 결과적으로 빈곤의 퇴치는 충분한 경제성장의 문제이며, 사회에서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는 관련이 없다는 왜곡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분석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데이터의 확보여부에 따라 이 보고서에는 국가별, 성별, 연령별로 분류된 세부 데이터가 포함된 별도의 통계자료 및 Global SDGs 지표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아직 HLPF는 아직 완성형이라 볼 수는 없다. 운영면에서도 2016년 7월 29일 회의에서는 이후의 후속 조치와 검토의 방향에 대해서만 최종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앞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SDGs 이행을 평가하면서 2017년 HLPF를 준비할 것이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미 2017년 Spotlight 보고서를 재작성할 계획을 발표했고, 2017년 7월 7일-8일 양일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회원국의 SDGs 정책을 다룰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등 전세계에서 SDGs 이행을 둘러싼 다양하고 실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다. 2017년 HLPF는 7월 10일-19일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 Martens, Jens (2016) “The HLPF 2016: First global mee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and the SDGs” Global Policy Watch. (<https://www.globalpolicywatch.org/blog/2016/08/09/the-hlpf-2016/>, 접속일: 2016.12.1.)
- Reflection Group (2016) Spotlight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2030spotlight.org/sites/default/files/contentpix/spotlight/Agenda-2030-en_web_accessible.pdf, 접속일: 2016.11.1.).
-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Websit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접속일: 2016.12.6.).
- The German Government (2016) Report of the German Government to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in July 2016.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mberstates/germany>, 접속일: 2016.10.1.).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Year One of Implementing the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full repor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mberstates/republicofkorea>, 접속일: 2016.10.1.)
- The Government of Turkey (2016) Report on Turkey's Initial Step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mberstates/turkey>, 접속일: 2016.10.1.).
- UN (2016)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New York: UN.
- UN ECOSOC (2014) Report of the first meeting of the high - 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HLPF/2014/2)
- _____ (2016a) Executive summaries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 (E/HLPF/2016/7).
- _____ (2016b) Report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t its 2016 session (E/HLPF/2016/8).

_____ (2016c)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2016/75*) (unstats.un.org/sdgs/files/report/2016/secretary-general-sdg-report-2016—EN.pdf, 접속일: 2016.10.1.).

UN General Assembly (2012) The Future We Want (A/RES/66/288).

_____ (2013) Implementation of Agenda 21, the Programme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 and the outcomes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RES/67/203).

_____ (2013) Format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A/RES/67/290).

_____ (2016) Critical Milestones towards Coherent, Efficient and Inclusive Follow-up and Review at the Global Level (A/70/684).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